

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, 경기 광주시 집중호우 농업 기반시설 피해지역 현장점검

윤 홍승혁 기자 | ㉠ 승인 2022.08.19 14:54



[사진=한국농어촌공사]

소병훈(경기 광주시갑)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홍중저수지(중대물빛공원) 토사유입 현장과 장지동에 소재한 태봉용수지선 매몰현장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의 농업기반시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였다.

경기도 광주에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내린 644mm의 기록적 폭우로 농업용 용수로 7개소가 밀려든 토사로 인해 매몰되어 용수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.

소병훈 위원장은 점검현장에서 만난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면서“복구를 위한 재해예산 편성과 지원 수준의 상향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”는 의지를 밝혔으며

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“벼가 본격적으로 이삭을 맺고 여우는 시기로 접어든 만큼 신속히 복구작업을 진행하고, 향후 태풍 등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저작권자 ©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홍승혁 기자